

책을 한 권 읽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들. 사랑 아닌 사랑 얘기였다. 책속에서 초로의 작가는 오직 소설로서 읽혀지기를 바랐지만 세상에 아둔한 나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벼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첫머리를 여는 호흡이 짧으며 군더더기 없는 간결문은 당시 이십대 후반의 나를 매료 시켰다. 그 매력의 올림은 “칼의 노래”라는 제목 이었다. 제목의 칼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무(武)의 이야기였다. 그 무(武)의 중심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장군은 소설 속 차갑게 닦여진 문장에서 노량해전 이전으로 온전히 살아난 듯 했다. 400년 조선이란 공간으로 시간을 거스른 장군의 삶은 마지막 바다 노량으로 나아갈 때까지 참으로 힘겨워보였다. 그 힘겨움은 내가 알고 있는 “성웅”이란 말과 너무나 달랐다. 그 이질성은 졸망졸망하던 유년시절, 시골학교에서 본 큰 칼 찬 동상의 무너와는 너무 다른것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내지른 호칭 뒤에 이토록 순결한 삶이 가려져 있을 줄이야... 작가는 책을 집필하기 전 아산 현충사에 들러 장군의 칼과 보물로 지정된 “난중일기”를 말없이 들여다보며 저물어서야 돌아갔다 했는데 난 늙은 지성인의 마음을 움직인 저 유물 속 인물이 어떠했는지 그 글의 내면을 알고 싶었다. 그렇게 난 서른 즈음에 한권의 소설을 통해 “난중일기”를 알게 되었다. 내 책장에는 두 권의 일기가 꽂혀있었다. 그 일기들은 십 수년의 세월이 쌓인 해묵은 것이었다. 세월의 이유를 빌려 난 그 두 권을 제쳐두고 또 한권의 일기를 구입했다. 이번에 접한 일기는 믿음사에서 출판한 노승석 님의 번역의 교감완역본으로 이 책에는 새로 발굴된 “을미일기” 32일치와 원문이 수록된 850여 페이지의 제법 두툼한 분량이었다. 12월의 저물녘. 찬 공기를 맞으며 퇴근하는 길은 추웠다. 난 모두 잠든 밤, 일로 지친 피로한 기운에도 언 몸을 잠시 녹인 후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자리해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임진년부터 시작된 장군의 일기는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봉, 맏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 했다.”로 시작했다. 문장은 짧고 명료했다. 그 명료함에는 무인의 차가운 기가 숨어있는 듯 했다. 그 무인의 진중함이 밴 장군은, 몸이 불편해 일기를 적지 못한 날을 제외하곤 어김없이 파도의 높이와 바람의 방향을 살핀 듯 했다. 척후로부터 올라오는 하급 첨보에서 공문 작성의 사소한 일상까지 차곡히 채워진 날들은 한순간도 소홀함 없었다. 그 지치지 않는 고집스런 기록정신은 인간의 끈기에 대한 경이로움을 보는 듯 했다. 날과 달, 해가 갈수록 일기엔 전투, 작전, 전략 등 군사적 단어들로 가득했다. 그 글들에 드러난 장군의 전쟁은 사실적이었다. 이성이 파괴된 전쟁터에서 이성으로 쓰여 진 장군의 기록은 희망을 기대한 내일의 말들이란 보이지 않았다. 장군은 내일이라는 불명확한 미래의 말들을 좋아하지 않는 듯 했다. 그것이 전쟁이라는 현실을 돌파하려했던 장군의 의지인 듯 했다. 21세기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난 전쟁은 잘 모르지만, 전쟁이라는 불분명한 세상에서 내일의 희망을 말한다는 건 의미없는 사치였을 터, 결국 그 희망의 누락이 임진란이란 긴 전쟁의 시대를 현실로 받아낸 고독한 사람들의 또 다른 희망이지 않았을까... 깊은 밤 손 끝에 전달되는 종이의 질감은 차가웠다. 귓가에 스치는 종이의 가벼움에 밀려 일기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 장군의 삶은 야전생활에 지친 듯 했다. 그 무거운 생활에도 통제사의 신분으로 친히 주둔지 방어시설들을 순찰하고 무기고에 내려가 손수 병장기를 점검하는 흐트러짐 없는 행동들은 일상의 안일함에 젖어있는 작금의 나에게 실로 일깨워 주는 바가 크다 아니 할 수 없겠다. 임진에서 무술까지 일기 곳곳엔 장군의 진솔한 인품이 묻어났다. 강토가 처참히 유린당한 궁핍한 살림에도 상서로운 일이 있을 때면 병사와 백성들의 혈벗음이 안타까워 떡과 술, 고기 등 작은 음식을 베풀며 정겹게 위로하는 이런 행위는 결국 사지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장군에게 목숨을 맡겨 전투를 치르게 한 고도의 인술이자 애민이고 치민의 용병술이며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이라는 상호윤리의 속 깊은 행위가 아

닌가 한다. 이처럼 도타움이 묻어난 장군의 인간애 뒤엔 형벌 또한 엄격했다. 군율을 어기면 어김없이 참으로 다스렸는데, 형을 집행할 때 홀로 동헌에 앉아 칼을 받는 죄인의 목 떨림을 봤을 장군의 마음. 한 집안의 아비이자 자식이었을 그들에게 이유가 어떻든 칼을 내린 깊은 애환이야 장군의, 사람에 대한 애민(愛民)을 생각할 때 굳이 말해서 무엇 하랴. 생과 사란 여러 곡절들이 엉킨 장군의 언어에서도 유독 눈에 두드러진 대목은 전쟁 4년 후인 을 미년 9월 “한잔 술 오늘 달빛 아래 나누고 나면 내일은 이별의 슬픈 정만 남으리”라는 선 거이 수사와의 이별을 아쉬워해 적은 시 한 수이다. 수년을 전장에서 부대낀 남자들의 끈끈한 정이 너무나 잘 표현 되어 보인다. 이는 의미의 실종이라는 시대의 읽어버린 인간성 상실에 “우리들”이란 집단의식에서 벗어나 “너”와 “나”라는 오늘날 개별적 이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일기의 끝에서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지는건 장군의 어머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다. 선이 넘은 백전노장이 팔순의 노모를 걱정하는 대목에선 읽는 내내 마음이 아련해진다. 전투가 소강상태일때 본가로부터 편히 계신다는 전갈을 받으면 더 없이 안심하고, 어지러운 꿈을 꾼 날이면 밤늦게 객창에 앉아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실천해 보여 주신 것 같아 느끼는 바가 크다. 내일은 나도 암으로 누워계신 어머님 다리를 좀 주물러 드려야겠다. 고요한 밤. 방에 불을 끄고 조용히 자리에 누웠다. 불혹이라는 적지 않는 나이에 다시 접한 한권의 옛 문헌은 현실과 일상이라는 삶에 충실하고, 인간을 진정 인간답게 대하여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는 읽어버린 “참사랑”과 “후회 없는 삶”이란 주제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진정한 휴머니즘이란게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